

설계부터 제품개발 · 출시까지 전주기 지원

전북도, '중소기계 산업 엔지니어링 설계 지원' 참여기업 모집... 기업별 최대 2000만원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력 향상과 전문 설계 기술을 지원하는 '중소기계 산업 엔지니어링 설계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지난 2018년 익산에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한 이후, 지난해까지 120여 개 기업에 엔지니어링 설계 장비·SW 활용과 맞춤형 엔지니어링 전문기업(기관)을 연계해 기술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엔지니어링 설계 지원대상 기업을 오는 19일부터 올해 사업비 예산 8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온·오프라인

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기업으로 서류평가 및 현장점검을 통해 수행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의 엔지니어링 설계지원 사업은 크게 4가지다.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최적화 설계·해석 지원, ▲3D 스캐너·프린터 활용 실물모형 제작 및 장비·SW 활용지원, ▲엔지니어링 설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용 교육(60명), ▲전문 설계 소프트웨어 공동활용 공간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기계산업의 안정화를 통한 도약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중사자 실무능력 향상 및 최적화 설계 기술 등을 지원하는 기술지원단을 지속 운영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설계 및 제품개발의 효율성 증대, 비용과 시간의 획기적 절감 등으로 제품의 성능개선과 신속한 신제품 개발로 제조혁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병승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중소기계 기업들이 제조기술의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제품개발, 출시까지 전주기 지원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최적화 설계를 통한 신뢰도 향상으로 도내 기계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해 신시장 진입에 전북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소기업 산업 엔지니어링 설계지원 사업과 관련해 관심 있는 도내 기업은 (재)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www.jbtp.or.kr)이나 전북테크노파크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가족친화 기업 문화 확산 총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 공모 2년 연속 선정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 이하 센터)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1년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 공모사업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센터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에 초점을 맞춘 인증 전 준비 컨설팅 지원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족친화 인증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2020년 기준 120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 혜택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선정 가점, 중소기업 투·융자금리 우대, 출산 국 심사시 전용심사대 제공 등 110여 가지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전북도는 가족친화 인증 중소기업 대상 유망 중소기업 선정우대(가점 1점 이내),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산정보증요율 0.2%), 선도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 1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센터는 오는 1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컨설팅 희망 기관과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숲가꾸기 사업 통한 건강한 산림 조성

전북도가 산림을 통한 경제·환경적 가치 향상을 위해 숲가꾸기에 집중해 도내 1만3,870ha의 산림에 26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현상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요즘, 숲 가꾸기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사업이다.

도는 올해 조림지(造林) 가꾸기 1만 590ha를 비롯해 1만3,87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한 공공산림가꾸기 148명의 인력 채용도 이뤄진다.

숲 내 공기흐름을 적절히 유도해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공조림지나 천연 숲에 대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의 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수원(水源) 함양, 산사태 방지 등 기능별 숲가꾸기 모델 숲을 조성하고, 도시 내·외곽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익기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설계·시행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 동안 현장토론회, 기술 자문 등을 시행한다.

/유호상 기자



원활한 모습의 코로나19 접종센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전북 익산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날인 15일 익산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대기하고 있다.

'마을 세무사' 제도, 도민 세금해결사 역할 특색

도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운영 중인 '마을 세무사' 제도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마을세무사' 도움으로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건수가 지난 2016년 6월 제도가 시행된 이래 2020년 말까지 총 5,158건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상담 건수는 1,325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07건(32%)이 증

가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민의 세금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농어촌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 총 89명의 세무사가 위촉돼, 개인 및 사업자에게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전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군별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내용 모두 가능하며,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과 신고대행은 상담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호상 기자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와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사업'은 전문가 지도를 통한 제조 현장 문제 파악 및 소규모 공정개선으

로,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내부의 혁신활동 전문가 육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품질혁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에 의해 도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 신청을 받으며, 서류심사 및 현

장심사를 거쳐 총 4개사를 최종 선정해 기업당 2,500만원, 총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확인 작성 후 이메일(mspark@k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체육회, 법정 법인화 박차

법인설립 창립총회 개최... 6월 8일까지 완료 계획

전북체육회가 법정 법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창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도 체육회 정관, 임원 선임, 출연 재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도 체육회는 지난 1월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 법인설립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도 체육회는 발기인 신청 등 각종 행정적 절차를 거쳐 6월 8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 할 계획이다.

그간 도 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시·

군·구체육회는 법인격 관련 규정 없이 비법인사단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권리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조직 안정화는 물론 스포츠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강선 회장은 "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안정적인 예산 및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회, 사랑받는 체육회로 거듭날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